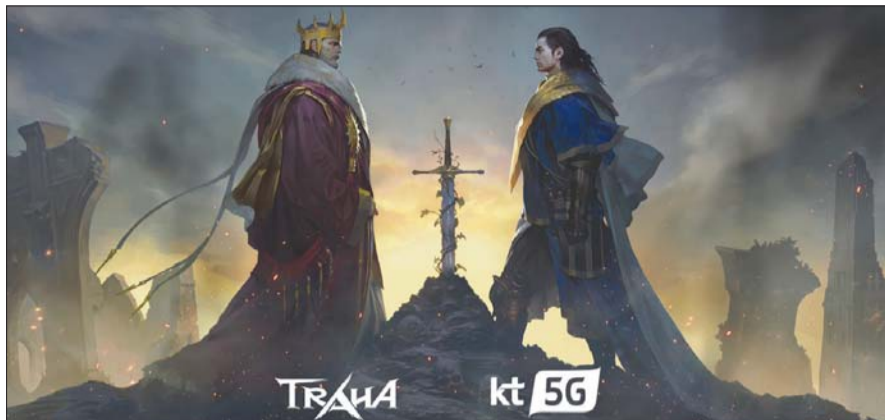


“요금걱정 없어요” 이통사, 게임신작 업고 5G 드라이브

KT
모바일게임과 팝콘게임 리뉴얼
넥슨 '트라하' 제로레이팅 제공

SKT
LoL 라이엇게임즈와 스폰서십
VR·AR 게임 등 콘텐츠 독점



KT와 넥슨 트라하 이벤트 홍보 이미지. /KT



라이엇 게임즈 박준규 한국대표(왼쪽부터)와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이 5G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초반 승부수로 게임이 떠올랐다. 각사마다 게임사와 손잡고, 제로레이팅 전략을 활용해 눈길 끝에 나서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업체가 대신 지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면 이용자는 모바일 게임을 데이터 차감 없이 즐길 수 있어 게임 이용에 따른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초반 콘텐츠로 인기 있는 게임을 선점해 가입자를 유도할 수 있다.

21일 KT는 국내 HTML5 게임 전문 업체인 모바일게임과 손잡고 게임 전용 사이트 '팝콘게임' 활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HTML5게임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프트웨어 없이도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PC, 스마트폰 등의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웹 기반 게임이다. 이번 협약으로 KT는 팝콘게임 리뉴얼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트리밍 게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18일 출시된 넥슨의 '트라하'에도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트라하는 전체 크기가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는 오픈월드 배경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사전예약 참가자만 420만명이 넘는 대작이다. 설치 용량만 5GB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KT는 '트라하'를 내려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 용량에 필요한 5GB를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5G 시대를 맞아 게임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기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로 유명한 라이엇게임즈와 5G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롤 챔피언스 코리아(LCK) 관련,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를 독점 개발한다. 게이머들의 콘텐츠 선호도를 분석해 VR 경기 리플레이, 가상 팬 미팅 등 신규 콘텐츠도 개발한다.

아울러 VR 게임으로 유명한 건택과 게임업체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해치와의 제휴를 통해 5G 고객에게 스트리밍 게임 콘텐츠 5종 이상을 독점 제공하기도 한다. 넥슨과는 '카트라이더 VR'도 서비스한다. 나이언틱과도 독점 제휴를 맺고 '해리포터 AR'를 상반기 오픈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사업자와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분야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5G 콘텐츠 확대

방안'을 내놓고 제로레이팅 프로모션을 늘렸다. '리니지2레볼루션' 등 11종 게임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5종의 게임에 대해서는 가입 후 90일간 게임 이용 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무과금한다.

아울러 미국 엔비디아와 손잡고 PC 게임인 '포트 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500여 종의 클라우드 게임을 하반기 단독 출시한다. 해치와도 5G VR 게임 독점공급 양해각서를 맺고 5G 모바일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교보증권 박건영 연구원은 "5G 시대 도래 시 B2C부문에 게임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 역할을 함과 동시에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일으킬 것"이라며 "특히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통신, 인터넷, 게임,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데이터 차감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로레이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로레이팅이 확대되면 사업자 간 이견 차로 도입 반대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콘텐츠 사업자는 제로레이팅을 확대하면 망을 차별 없이 써야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스타트업 등에서는 특정 사업자와 제휴를 맺는 제로레이팅으로 통신사 서비스 위주로 수익화를 꾀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나 콘텐츠만 살아남고, 중소형 기업은 어려움을 겪는 생태계 위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예민한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어 정교하게 시장의 영향을 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망중립성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전자는 러시아에서도 2019년형 프리미엄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LG전자

LG전자, 러시아서 프리미엄 입지 굳힌다

모스크바서 신제품 발표행사 개최

LG전자가 러시아에도 프리미엄 가전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LG전자는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모스크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2019년형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주요 거래선과 현지 미디어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 현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다이애나 빌라쇼바'를 참여시켰다. 프리미엄 제품과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함이다.

LG전자는 체험 공간에 특히 신경 썼다. 중앙에는 LG 시그니처와 LG 씽큐를 체험하는 통합 공간을 운영했다.

주요 전시 제품은 월페이퍼 디자인 올레드 TV를 비롯한 LG 시그니처 제품군이다. 거실처럼 꾸민 LG 씽큐존

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게했다.

2세대 인공지능 기술도 소개됐다. 올레드 TV와 나노셀 TV 등 2세대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세서를 탑재한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서다. 러시아어 음성명령뿐 아니라, 화질과 사운드를 최적화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뽐냈다. 러시아 포털 안텍스 인공지능을 탑재한 엑스뷰 AI 씽큐도 처음 공개됐다. LG전자 독자 기술에 영국 메리디안 오디오 기술까지 채용해 사운드를 최적화한 제품이다.

나노셀 TV 신제품도 현지에는 처음 선보였다. LG전자 독자 개발 나노셀 기술에 풀 어레이 로컬 디밍 기술을 더했다. 그 밖에 스타일러 등 의류관리가전과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무선 청소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으로도 주목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

최태원 SK회장, 서산공장 현장 방문

“SK이노, 배터리 글로벌 메이저 돼달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수주 계약
전기차 글로벌 시장서 주목받아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현장에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새로운 에너지 메이저 도약을 이끌 것이라는 비전도 내놓았다.

앞서 최 회장은 배터리 사업 초기 "모든 자동차가 우리 배터리로 달리는 그 날까지 SK배터리 팀은 계속 달려나갑니다. 나도 같이 달려겠습니다"라는 기념 메시지를 통해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날 최 회장은 5시간여 머물면서 운전 배터리를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경영 현황을 보고 받고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구성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에너지 산업에서 글로벌 메이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터리 사업 구성원들이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줘서 그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최태원 SK 회장(가운데)이 19일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김진영 배터리생산 기술본부장(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 사업이 기술력 확보와 수주액 등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최태원 회장이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회장은 이날 "배터리 사업은 환경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 환경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성장의 폭이 큰 만큼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미국, 중국, 유럽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수주 계약을 통해 올 3월말 기준 누적 수

주 잔고를 2016년말 대비 약 13배인 430GWh까지 끌어 올리며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중국, 헝가리 등 글로벌 주요지역에 투자를 단행해 2022년까지 총 60GWh 규모에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서산 2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km에 달하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꼽힌다. 세계 최초로 양극재의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을 8:1:1(NCM811)인 배터리를 개발해 첫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성운 기자 ysw@